

研究論文

‘위험사회’에서 ‘자기계발’의 윤리학에 관한 小考

고은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조교수, 철학 전공
eunkangkoh@seoultech.ac.kr

- I. ‘위험사회’에서 ‘개인화’ 문제
- II.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
- III. 선진(先秦) 철학에서 자기 구성
- IV. 맺음말

I. ‘위험사회’에서 ‘개인화’ 문제

21세기 신자유주의 질서에서 개인이 당면한 ‘개인화에 따른 자유’는 윤리학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주요 논제다. ‘개인화에 따른 자유’는 기든스, 벡, 래시 등이 논한 ‘성찰적 근대화’¹⁾, ‘위험 사회’²⁾를 논하며 언급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개인화’는 개인이 피해갈 수도 있는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현상이 아니다. 벡은 ‘개인화’가 개인에게 강제된, 개인의 의지로는 피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이라고 강조하였다. 바꾸만 역시 개인에게 모든 자유가 주어진 지금, 개인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이 ‘개인화’라고 밝히고 있다.³⁾

벡, 바꾸만 등의 학자들이 ‘개인화’라 부르는 현상은 신자유주의 질서하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벡이 강조하는 “개인화 과정의 핵심 특징들 중 하나는, 개인들에 의한 능동적인 기여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요구한다는 것이다.”⁴⁾ 벡이 말하는 ‘개인에게 요구된 능동적 기여’는 바꾸만이 말한 ‘해방’ 이후 개인이 쟁취한 자유의 이면이다. 벡은 개인에게 “능력과 역량의 새로운 조합”⁵⁾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규범의 강제가 가족, 학교, 종교단체, 군대 등에서 행해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다. 개인에게 경험할 것을 강요하는 ‘사회’의 범위는 이제 공동체, 국가의 영역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었다. 개인이 선택하기 이전에 명시적으로 강요되던 규범이 사라진 자리에서 개인은 ‘가장 현명한’ 선택을 놓고 끝없는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 벡은 선택을 강요당하는 개인의 불안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선택거리들의 범위가 더 넓어질수록,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결정해야 할 필요가 더 커질수록, 더 많은 개인들이 생애조정과 생애통합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야만

1) 앤소니 기든스·울리히 벡·스콧 래쉬 지, 임현진·정일준 역, 『성찰적 근대화』(한울, 1998).

2) 울리히 벡 지, 홍성태 역, 『위험사회』(새물결, 1997).

3) 지그문트 바꾸만 지, 이일수 역, 『액체근대』(도서출판 강, 2009).

4) 울리히 벡 외 지, 한상진·심영희 편저, 『위험에 처한 세계와 가족의 미래』(새물결, 2010), 128쪽.

5) 위의 책, 128쪽.

한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남자고 여자고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조작하고, 임기응변하고, 목표를 정하고, 장애를 인식하고, 패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시도해야 한다.

표준생애 대신에 이제 “골라잡는 생애”, 사실상 “알아서 해’ 생애”가 들어선다. 이것은 사람들이 원하건 원치 않건, 그들이 대응할 능력이 있건 없건 일어난다. 실상, ‘알아서 해’ 생애는 언제나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생애이며, 끝도 없이 잠재하는 위험들로 가득하다.⁶⁾

‘알아서 해’ 생애를 살아가는 개인은 생애조정과 생애통합을 규범에 의존할 수 없다. 개인화는 근대성을 통해 오히려 보편화·표준화되고 강화되었던 전근대적 성역할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한다.⁷⁾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출산 및 육아, 즉 재생산의 의무가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되면서 ‘여성’이라는 범주는 해체되고 ‘개인화’되었다. 범주로서의 ‘여성’에게는 ‘면제’되었던 선택의 강요가 평등하게 여성 개인에게 행해진다. 혹은 더 많은 선택 사항이라는 더욱 극적인 방식으로 여성 개인에게 요구된다.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출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육아를 스스로 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 더 나은 직장을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등이 ‘여필종부(女必從夫)’라는 규범이 사라진 자리에 개인의 선택 사항으로 여성 개인에게 요구된다. 범주로서 여성을 구성한 요소들이 개인의 선택이 될 때, 개인은 여성/남성이라는 성 자체를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⁸⁾ “사랑과 정체성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가고 있는 것”이라는 벡-게른샤임과 벡의 지적⁹⁾은 섹슈얼리티는 결국 젠더이며 젠더로서 ‘여성’은 더 이상 범주가 아니라고 한 버틀러의 주장¹⁰⁾과 연결된다. 섹슈얼리티와 젠더가 작용하는 사랑의 실천이 더 이상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 문제라면 사랑의 문제는 개인이 자신의 선택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문제가 된다. 선택의 요구 앞에서 개인이 느끼는 불안이 사랑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6) 위의 책, 129쪽.

7) 울리히 벡·엘리자베트 벡-게른샤임 저, 강수영 외 역, 『사랑은 지독한 혼란』(새물결, 1999), 30쪽.

8) 주디스 버틀러 저, 조현준 역, 『젠더트러블』(문학동네, 2008).

9) 울리히 벡·엘리자베트 벡-게른샤임, 앞의 책, 102쪽.

10)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사회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요구받았던 개인은 이제 “하향 이동이 바로 저기 모퉁이 뒤에 와 있다.”¹¹⁾라거나 혹은 “네 갈 길을 만들어라! 계속해, 더 세계 해봐! 계속 밀고 나가, 그렇지 않으면 결코 정상에 오를 수 없을 거다.”¹²⁾라는 말을 들어야만 한다. 개인은 ‘모든 것은 나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고 믿기를 요구당한다. 백의 ‘알아서 해’ 생애를 살아가기 위해 개인은 ‘액체 근대’의 “이동하고 유연하라는 불변의 압력”¹³⁾ 속에서 끊임없이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자신을 변화시키려 노력한다. “자신의 삶과 발상 속에 들어 있는 표준적 유형들을 벗어던지는 것은 영원한 습관, 결코 끝나지 않을 개인의 학습과정이 되었다.”¹⁴⁾ 서동진의 ‘자기계발하는 주체’¹⁵⁾는 여기로부터 탄생한다. 요컨대,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는 ‘위험사회’에서 ‘개인화’ 문제를 인지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개인이다.

II.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

1. 한국사회의 ‘자기계발’ 현상

이 절의 제목은 2009년에 출판된 서동진의 책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의 부제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에서 따왔다. 서동진은 푸코가 윤리(ethics)를 재정의한 틀¹⁶⁾을 사용하여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을 분석하였다. 그는 1980년대에 시작되어 1990년대에 이르러 ‘자기계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회 현상에 주목하였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어떤 사람을 빚어내는가”라는 물음으로 시작한 그는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를 정의하고 신자유주의 체제가 “빚어내는” 주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물음에 접근하지 않는다. 물음의 순서와는 반대로, 그는 자기계발의 담론들을 분석하여

11) 올리히 백 외, 앞의 책, 129쪽.

12) 위의 책, 129쪽.

13) 위의 책, 133쪽.

14) 올리히 백 · 엘리자베트 백-게른샤임, 앞의 책, 91쪽.

15)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돌베개, 2009).

16) Foucault, Michael, *The Use of Pleasure*(New York: Vintage Books, 1990).

자기계발의 담론들이 지식 권력으로 작용하여 “빛어내는” 주체를 형상화 하고, “자기계발하는 주체”를 통하여 신자유주의 한국사회를 분석하였다.

‘자기계발’, ‘자기관리’, ‘성공학’, ‘자기경영’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서적들의 출판, 관련 강좌 개설은 한때의 열풍을 넘어 2011년 현재까지도 꾸준히 지속되는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강의영 기자가 2011년 9월 13일자 《연합뉴스》에 작성한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입사 가이드 책자 『삼성 리크루팅 매거진 에스케이』를 취업설명회에서 배포하였는데, 이 책에는 “고참 선배들이 전하는 입사 노하우와 조언이 빼곡히 담겨 있다”고 한다. 《연합뉴스》 보도가 인용한 두 명의 “고참 선배”의 조언에 공통된 내용은 한마디로 ‘자기계발’이다. 인용된 두 명 중 한 명은 “자기계발을 위해 많은 책을 읽는데, 입사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빠르게 변하는 IT업종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창의력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기계발’은 사회 현상일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체제의 일부이며, 체제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서동진이 분석한 대로 체제의 유지를 위한 주체의 생산이다.

서동진이 푸코의 윤리 개념을 틀로 사용하여 분석해낸 ‘자기계발하는 주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⁷⁾ ‘자기계발하는 주체’로 탄생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첫째, 자신을 객체화한다. 자기계발 담론이 생산하는 자아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자기의 문제화”를 수행한다. 둘째, 객관화된 자기를 계발하기 위해 자기계발 담론이 제공하는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실천한다. 셋째, 자기계발은 자신의 삶의 ‘목적(telos)’에 연결되어 있다. 이 실천들을 통해 개인은 ‘자기계발하는 주체’로서 탄생된다. 이 틀에는 푸코가 “윤리”를 도덕규범과 실제 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개인의 결정으로 재정의할 때 사용한 개념들, 예컨대 문제화(problematization), 지식·권력, 통치(governmentality)와 ‘윤리’의 네 가지 선택¹⁸⁾, 즉, 윤리의 재료들(elements), 복종(subjection)의 양식, 윤리적 실천(work), 그리고 목적이 이용되었다.

푸코의 ‘윤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동진이 제기한 ‘자기계발하는 주체’를 분석해보면, ‘자기계발하는 주체’란 한국사회의 일원인 개인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 사회가 원하는 시민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17) 서동진, 앞의 책, 280-282쪽.

18) Foucault, Michael, 앞의 책, pp. 26-28.

자기계발 담론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을 문제화하고, 자기계발의 테크닉을 실천한 결과로서 구성된 산물로 요약된다. 푸코가 강조한 대로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윤리적 주체(ethical subject)’로 탄생된다. 자기계발의 담론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지식-권력으로서 작동하여 그 결과 탄생된 ‘자기계발하는 주체’가 “빛어내는” 사회, 그것이 신자유주의 한국사회다. 신자유주의 한국사회가 개인의 ‘자유’에 반하여 개인을 학교, 직장, 군대 등의 틀에 집어넣어 ‘자기계발하는 주체’로 “빛어내는”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담론이 바뀌면 주체가 바뀌고 주체가 바뀌면 주체가 만들어내는 사회가 바뀐다. 물론 담론은 지식 권력으로 작동하는 담론이므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럼에도 푸코가 극복하려 한 구조주의적 설명 방식을 상기하면 푸코와 서동진이 말하는 희망을 읽을 수 있다.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개인은 바뀔 수 없다는 구조주의적 전제는 구조를 바꾸는 혁명의 시대, 혁명을 위한 연대의 시대에는 통용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가 불가침의 원칙으로 작용하는 시대에는 ‘구조를 바꾸기 전에 개인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계발에 열광하는 개인들’이라는 사회 현상을 설명해낼 수도 없다.

서동진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서로 다른, 그렇지만 서로 공명하고 교차하는 세 가지 주체성의 형태”¹⁹⁾가 생산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했다고 하였다. 그의 분석 대상이 된 사회 현상은 “국가가 추진한 새로운 ‘시민 형성’ 프로그램, 자본에 의해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새로운 ‘일하는 주체 만들기’ 기획,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열망하는 개인들이 추구했던 자기주체화의 행위들”²⁰⁾이다. 이는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이라는 관점에서, “유연한 노동주체를 형성하는 것과 자율과 책임의 시민을 빛어내는 것, 그리고 자기계발하는 자유로운 개인이 되는 것”²¹⁾이라고 다시 쓸 수 있다.

19) 서동진, 앞의 책, 372쪽.

20) 위의 책, 372쪽.

21) 위의 책, 375쪽.

2.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양면성

자신을 속박하는 외부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에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수록 결과적으로는 외부 권력에 더욱 확실하게 포섭되게 되는 개인의 문제가 바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양면성이 의미하는 바다.

자유를 향한 욕망은 권한위임과 팀워크, 자기주도성을 갖춘 지식근로자를 착취하려는 권력의 욕망과 마주친다. 감옥과도 같은 획일적인 훈육의 공간을 박차고 나오려는 학생의 욕망은 자기 주도적 학습주체를 형성하려는 권력의 욕망과 교차한다. 이미 주어진 삶의 궤적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유와 희망을 꿈꾸는 주체의 욕망은 자기계발, 자기경영하는 주체를 통해 그/그녀의 삶을 자기책임과 자기실현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권력의 욕망과 손을 잡는다. [...] 그렇다면 이런 자기계발에의 의지와 자유에의 의지의 공모는 불가피한 것일까. 자유에의 의지를 통해 우리의 삶을 예측시키는 권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는 자유에의 의지를 거부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전연 새로운 자유의 이미지를 고안해야 할 것인가. 아마 이것이야말로 이 책을 쓰도록 이끌었던 물음이었을 것이다.²²⁾

이 질문은 2011년 전지구적 질서로 자리 잡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살아가는 개인 앞에 매일 던져지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개인의 대답은 두 가지로 나뉜다. 자유에의 의지를 거부함으로써 근로자를 착취하려는 권력의 욕망에 포섭되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자유에의 의지를 거부하지 않고도 권력에 투항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자유에의 의지를 거부”하는 쪽의 대답은 유홍림, 홍철기²³⁾에서 찾을 수 있다. 유홍림, 홍철기는 아감벤을 분석하며, “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I would prefer not to)”²⁴⁾라고 답한다. 유홍림, 홍철기는 아감벤의 삶의 방식과 슈미트와 ‘삶의 방식’에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슈미트가 말한 ‘삶의 방식’이 자신의 존재에 고유한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인가 투항할 것인가,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데 반하여, 아감벤의 ‘삶의 방식’이란 양자택일을

22) 위의 책, 376쪽.

23) 유홍림·홍철기, 「조르지오 아감벤의 포스트모던 정치철학」, 『정치사상연구』 제13권 제2호(2007), 155-182쪽.

24) 위의 논문, 175쪽.

거부함으로써 혈벗은 삶, 다시 말해서 “주권에 의해 법이 중단됨으로써 법적 권리와 능력이 박탈된 존재인 동시에 삶, 혹은 인간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의 잠재성과 능력이 중단된 존재”²⁵⁾를 산출하는 “주권의 원리에 대한 가장 강한 반대”²⁶⁾를 의미한다.

다시 서동진으로 돌아가서, 그는 자유에의 의지를 거부하지 말고 “전연 새로운 자유의 이미지를 고안”할 것을 주문한다.

물론 자기계발하는 주체가 소망하는 자유가 험잡이나 기만이라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적어도 거의 모든 자유주의적 사회에서 자유란 자명하고 선형적인 이상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도구화되고 조각화됨으로써 사회적 삶을 관리하고 지배하는 데 사용된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는 자유를 통해 지배와 관리의 규칙과 의무, 규범을 의문시하고 현실에 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유라는 허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대안이라고 조금씩 결론을 내려선 안 될 것이다.²⁷⁾

따라서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는 것이 자유를 거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 자유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많은 선택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더 많은 재량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자유와는 반대방향으로 치닫는다는 느낌이 우리를 휩쓴다. 따라서 이제 자유를 향한 열망은 자유에의 환멸로 반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유혹에 굴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²⁸⁾

‘자유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자유와는 반대방향으로 치닫는다는 느낌’이라고 서동진이 말할 때, ‘자유의 반대방향’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바우만은 ‘자유의 반대방향’이라는 서동진의 모호한 표현을 ‘자유 속의 무능’²⁹⁾이라는 명확한 표현으로 대치했다. 바우만에 따르면, 모든 선택에 대해 자유로운 개인은 오직 개인화만은 선택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야만 하게 되었다. 과거 개인들의 연대를 통해 해결해왔던 개인의 일들은 대부분 개인 혼자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개인화를 거슬러 연대할 수도 없다. 가장 큰 이유는 개개인의 욕망이 개별화되어 하나의 욕망으로 묶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은 욕망을 충족할 자유가 있다.

25) 위의 논문, 177쪽.

26) 위의 논문, 177쪽.

27) 서동진, 앞의 책, 376쪽.

28) 서동진, 앞의 책, 377쪽.

29) 지그문트 바우만, 앞의 책, 57쪽.

그러나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는 혼자서는 역부족이다. 이것이 자유 속의 무능이다.

‘자유 반대방향’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가장 쉽게 다다른 말은 억압, 속박이다. ‘근대인’이 ‘봉건’ 혹은 ‘전근대’의 속박으로부터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실천을 ‘자유 추구’라고 부르는 것을 상기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제 억압, 속박은 ‘근대인’에게 주어졌던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자유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억압과 속박으로 치닫는다는 느낌’이라고 서동진의 말을 바꾼다면, 이때 속박은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속박보다는 자기 검열에서 오는 속박일 것이고, 억압 역시 총칼에 비유되는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부드러운 폭력이 야기하는 심리적인 짓눌림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예로 든, 삼성전자 입사 가이드를 소개한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 책자는 ‘삼성 면접은 따뜻한 면접으로 유명하다’고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 푸코가 개인이 도덕규범과 마주하게 되는 대표적인 장소로 꼽은 가족, 교회, 학교 그리고 한국사회라면 군대에서조차 물리적이고 가시적이며 직접적인 폭력은 줄어들고 있다. 개인은 큰소리로 명령받지 않고 부드럽게 권유받으며 개인의 행동은 직접적으로 눈앞에서 제약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개인은 안다. 부드러운 말과 행동은 언제나 환대의 표시인 것은 아니며, ‘아니요’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거절당했다는 것을 안다. ‘환대’와 ‘거부’가 명확하지 않기에 개인은 항상 ‘눈치’를 보며 자기 검열을 한다. 억압을 느낀다. 그러나 검열하는 것도 자신이고 그로 인해 억압을 느끼는 것도 자신이다. 출퇴근이 자유롭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일수록 스마트폰에서 떨어질 수 없고 24시간 근무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면 아마도 ‘자유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자유와는 반대방향으로 치닫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때가 아닐까. 출퇴근이 확실하고 업무가 통제된 직종이 차라리 근무 외 시간에는 자유롭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개인의 해방과 자유, 그리고 ‘개인화’에 따른 자유의 양면성에 대한 논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 자유의 밝은 면을 희망찬 어조로 말하는 기든스에 대한 인용은 2011년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덧없는 메아리처럼 들리기도 한다. 한기호와 장정일은 각기 다른 지면에서 미키 맥기가 쓴 『자기계발의 뒷』이라는 책의 서평을 통해 자기계발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한기호는 《경향신문》 칼럼³⁰⁾에서 “아직도 자기계발의 뒷에

빠져 계십니까?”라고 반문한다. 그는 교보문고에서 2000년대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이라는 부제가 붙은 자기계발서 『시크릿』임을 지적하며 자기계발서 열풍에 쓴소리를 한다. “정신적 마약’에 불과한 자기계발서는 노동의 유연성을 키우려는 자본가들의 입맛에나 딱 맞는다”는 것이다. “2000년대에 그 어느 세대보다 열심히 자기계발서를 읽고 스펙도 키우면서 글로벌화와 정보화에서 최첨단을 달린” 20대들을 기다리는 현실은 빛나는 미래가 아니다. 한기호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성공의 필연성을 굳게 믿지 않은” 자기 자신에게 전가하도록 만드는 점이 자기계발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장정일 역시 《시사 IN》 칼럼³¹⁾에서 자기계발서를 “진보 담론을 잠식한 ‘포르노그래피’”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그는 자기계발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소비하는 자기계발 문화가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할 뿐만 아니라, 미키 맥기의 말을 빌려서 “가능성이라는 즐거운 포르노그래피 안에서 흥청대도록 만든다”고 지적한다. 그는 미키 맥기와 함께 서동진을 언급하며 “두 사람은 자유주의 국가가 점점 강압 수단에 덜 의지하는 대신, 주체의 자발성을 통치와 접합한 좋은 예가 자기계발 의지라는 데 합의한다”는 말로 논의를 요약한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주체의 자발성을 통치와 접합한 좋은 예가 자기계발의 의지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해도, 자기계발의 의지를 포기하고 “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I would prefer not to)”를 대안으로서 받아들이는 어렵다. 자기계발의 의지를 포기하는 실천이 체제의 통치에 포섭되기를 거부하는 실천이 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주체가 자기 자신을 형성해가고자 하는 의지마저도 함께 포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자기계발하는 주체를 문제화하는 틀을 제공한 푸코의 ‘윤리’ 개념으로 논의를 되돌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주체의 자발성과 자기계발의 의지를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앞서 밝혔듯이,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는 ‘위협사회’에서 ‘개인화’ 문제를 인지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개인이다. 그러나 푸코가 『성의 역사』 연작을 통해 보여주었듯이 자기를 능동적으로 개발하는 주체, 자신을 갖고 닦아

30) 한기호, 「아직도 자기계발의 뒷에 빠져 계십니까?」, 《경향신문》, 2011년 9월 5일자.

31) 장정일, 「진보 담론을 잠식한 ‘포르노그래피’」, 《시사 IN》 제205호, 2011년 8월 12일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삶의 기술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이어져왔다. 또한 동아시아 학문 전통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고대 동아시아 철학에서도 발견된다. 자기계발하는 주체를 신자유주의 한국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 다른 맥락에서 고찰하는 작업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되려고 할수록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될 수 없는 모순, 성공을 향한 희망에 부풀어 노력할수록 더 깊은 실패를 경험하는 모순을 다른 각도에서 성찰해볼 여지를 제공한다.

III. 선진(先秦) 철학에서 자기 구성: 버틀러, 헨슨을 중심으로

1. 버틀러의 푸코 독법

주체를 젠더의 영역에서 문제화한 버틀러 역시 푸코의 ‘윤리’를 통한 자기 구성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구성(construction)에 대한 잘못된 해석, 즉 “구성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행동, 즉 한 번 일어난 것으로서 그 효과들이 확고하게 고정되어지는 일회적 행동으로 규정”³²⁾하는 해석이 “푸코 저작의 오독”³³⁾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지적한다. “문화라든가 담론이라든가 권력처럼 주체를 구성하는 구조들 내지는 비개인적인 힘들”³⁴⁾의 작용에 의한 일회적 행동으로 구성을 이해하게 되면, “구성은 선행하는 주체에 의해 시작되어진 일방적인 과정으로 이해되며, 이렇게 이해된 구성개념은 주체형이상학의 전제, 즉 행위가 있는 곳 이면에는 행위를 시작하는 의지적 주체가 존재한다고 하는 전제를 강화시킨다.”³⁵⁾ 이렇게 규정된 구성주의의 잘못은 본질주의든, 구성주의든 혹은 자연이든, 문화든, 담론이든, 권력이든 주체를 구성하는 구조에 의한 “결정론”³⁶⁾으로 귀결되며 결국 “인간적인 행위능력을 소멸시키거나 대체시키는 이론”³⁷⁾이 되어버린다. 요컨대, 버틀러는 ‘구성에 선행하는 주체’를 전제

32) 주디스 버틀러 저, 김윤상 역,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인간사랑, 2003), 35쪽.

33) 위의 책, 35쪽.

34) 위의 책, 35쪽.

35) 위의 책, 35쪽.

36) 위의 책, 35쪽.

하면 결국 주체성 혹은 행위능력을 소멸시킬 수밖에 없는 이론으로 귀결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푸코 저작을 ‘제대로’ 독해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버틀러가 지적하는 ‘푸코 오독’과 ‘푸코 정독’의 핵심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권력이 문법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주체로 잘못 해석된다면, 그리고 인문주의적 담론 내에서 그러한 주체가 차지하였던 형이상학적인 장소가 인간의 특권화된 장소였다고 한다면, 권력은 행위의 기원으로서의 인간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섰던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 개념을 바라보는 푸코의 관점이 이러한 주체의 문법 및 주체의 형이상학을 분열시키고 전복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면, 그리고 권력이 주체들의 형성과 유지를 총괄한다면, 권력은 권력 자체의 효과인 “주체”에 의해 설명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구성” 개념이 주체의 문법적 위치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올바른 개념이 아니게 된다. 왜냐하면 구성은 주체나 주체의 행동이 아니라 “주체들”과 “행동들”로 하여금 모습을 드러내도록 해주는 반복의 과정이기 때문이다.³⁸⁾

버틀러의 ‘푸코 정독’에서 주목할 지점은 ‘반복의 과정’이다. 버틀러를 중심으로 구성을 개념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 번 일어난 것으로서 그 효과들이 확고하게 고정되어지는”³⁹⁾ 행동이 아닌 일회적인 행동이 일어난다. 일회적인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를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면, 반복 속에서 주체들과 행동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구성이다. 구성이 주체를 구성하는 과정이라면, 행동이 존재하고 그 반복된 행동들의 결과로 주체들이 구성된다는 것이다. 푸코를 오독하면 ‘권력이 주체를 구성한다. 권력에 의해 구성된 주체가 행동한다’가 된다. 버틀러의 방식으로 푸코를 정독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이 행동한다. 개인이 반복적으로 행동한다. 개인이 반복적으로 행동할 때, 권력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인간의 복종, 저항⁴⁰⁾이 동시에 작용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이 윤리적 주체(moral subject)로 구성된다.

37) 위의 책, 35쪽.

38) 위의 책, 36쪽.

39) 위의 책, 35쪽.

40) 복종과 저항은 모두 mode of subjection에 포함된다. 따라서 mode of subjection을 ‘복종의 양식’이라 번역할 때, 이 번역어는 내면화된 순종부터 맹목적 거부에 이르기까지 복종과 저항의 스펙트럼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행위를 시작하는 의지적인 주체가 존재한다”⁴¹⁾고 전제할 때 발생하는 결정론으로의 회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버틀러는 “여러 구성 개념 대신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시하고자 하는”⁴²⁾ “물질 개념으로의 회귀”, 즉 신체로의 회귀를 주장하였다. 이 글에서는 버틀러의 구성 개념을 받아들여 “하나의 대안”으로 고대 동아시아 철학의 영역에서 주체의 구성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이때 헨슨의 도(道) 개념⁴³⁾이 ‘행위를 시작하는 의지적인 주체가 존재한다고 전제할 때 발생하는 결정론으로의 회귀 문제’를 고대 동아시아 철학, 다시 말해서 선진(先秦) 철학의 맥락에서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2. ‘방법’으로서 도(道)와 ‘자기 구성’ 과정으로서의 학(學)

버틀러의 구성에 관한 문제의식에 접근하는 열쇠로 헨슨의 ‘방법’으로서의 ‘도’의 두 가지 구분은 유용하다.⁴⁴⁾ 헨슨은 선진 철학의 맥락에서 ‘도(dao)’를 ‘방법(way)’이라 정의하고, ‘디스코스 도(discourse dao)’와 ‘퍼포먼스 도(performance dao)’로 나누어 설명한다. 직역하면 각각 ‘말하는 도’와 ‘표현하는 도’가 된다. ‘매뉴얼 도(discourse dao)’와 ‘표현되는 도(performance dao)’라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디스코스 도’가 방법을 몸으로 표현(performance)할 때 매뉴얼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헨슨의 구분은 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다시 말해서 방법을 전수하고 전수받는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방법을 가르칠 때는 시범을 보이기도 하지만 말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전화로 길을 물어보는 경우 길을 이는 사람은 길을 묻는 사람에게 말로 길을 설명한다. 길을 묻은 사람은 말한 대로 따라가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길을 묻은 사람은 가르쳐 준 사람의 말을 매뉴얼 삼아 길을 찾는다. 길을 성공적으로 찾았다는 의미는 말로 설명한 길과 몸으로 표현된, 다시 말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 이동한 경로가 같았다는 의미다. 길을 찾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41)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03), 36쪽.

42) 위의 책, 36쪽.

43) Chad Hansen, *A Daoist Theory of Chinese Thought*(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44) 위의 책.

의미는 누구의 잘못이든 말로 설명한 길과 몸으로 표현된 길이 달랐다는 의미다. 설명대로 가지 않았는데도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도 길을 성공적으로 찾았다고는 볼 수 없다. 시간 낭비, 설명을 듣는 수고, 육체적 고생 등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매뉴얼대로 하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지형지물이 바뀌거나 길이 달라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매뉴얼대로 하면 목표 지점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도’를 ‘방법’이라고 해석했을 때 ‘도’에서 중요한 점은 ‘그 방법이 성공적인가, 아닌가’이다. 매뉴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길을 묻는 사람은 천신만고 끝에 목표 지점을 찾았다고 가정하면 자신이 찾은 방법이 다음에는 새로운 매뉴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는 길을 성공적으로 찾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다음에는 새로운 매뉴얼을 사용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자신이 찾은 매뉴얼과 길을 아는 사람이 말로 가르쳐준 기존의 매뉴얼을 혼합하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매뉴얼을 만들 수도 있다. 길을 아는 사람이 가르쳐준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도 매우 쉽게 목표 지점을 찾은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매뉴얼은 폐기되고 새롭게 찾은 방법이 다음 시도에는 매뉴얼로 기능하게 된다. 어떤 경우이건 관건은 성공 여부다. 매뉴얼은 기존의 시도들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수정 보완된, 과거에 ‘성공적이었던’ 방법을 설명한 행동 지침이다. 대개 표현되는 도가 매뉴얼도와 일치하면 성공한다. 표현되는 도가 매뉴얼과 일치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뉴얼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헨슨의 도의 구분은 방법으로서 도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학(學)의 개념과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가철학을 넘어 동양철학을 대표하는 텍스트인 『논어』는 학(學)이라는 말로 시작된다.⁴⁵⁾ ‘배우고 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고 노랫가락처럼 읊조리는 논어의 첫머리는 학(學)이 습(習)과 짝이 되는 전통을 남겼다. 학(學)을 통상 ‘배우다’,

45) 『논어』의 ‘학(學)’에 관한 다양한 해석은 다음을 참조. 신창호, 「동양의 교육 전통에서 “배움”의 의미 -원시유학의 논의를 중심으로-」, 『교육철학』 제33권(2007), 141-166쪽; 이경무, 「‘학’과 공자 인학」, 『동서철학연구』 제43권(2007), 225-244쪽; 임옥균, 「오규 소라[荻生徂徠]의 『논어』 해석: 「학이」-주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제56권(2009), 257-302쪽; 임원빈, 「공자의 ‘학’에 관한 연구 -『논어』를 중심으로-」, 『공자학』 제1권(1995), 315-341쪽.

습(習)을 통상 ‘익히다’라고 번역하는데 이 통상의 번역이 헨슨의 도의 구분과 기본적인 관점에서 일치한다. ‘배우다’의 목적어는 헨슨의 용어로는 매뉴얼 도가 된다. 행동을 위해서는 일단 과거에 성공적이었던 매뉴얼(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주 단순한 행동을 제외하면 배운 대로 한다고 생각해도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적인 행동이 나오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 매뉴얼을 몸으로 표현해내기 위해 수없이 반복하여 연습하면 언젠가 매뉴얼과 같은 적어도 유사한 행동이 표현된다. 처음 시도에는 매뉴얼 도와 표현되는 도의 차이가 크게 마련이다. 시도가 거듭되고 반복적으로 연습하여 매뉴얼이 몸에 익으면 어느 순간 매뉴얼이 그대로 몸으로 표현되는 순간, 즉 매뉴얼 도와 표현되는 도가 일치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이 희열이며 이러한 과정 자체를 즐겨야 하는 것이다.

연구의 중심이 도(道)에서 이(理)로 이동한 성리학에서도 학(學)에 대한 관점, 즉, 학(學)이란 순간적인 체험이라기보다는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었다.⁴⁶⁾ 성리학자 주희(朱熹)는 학을 ‘본반다(效)’라고 해석하였다. ‘본반다’라는 말은 어떤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뜻이다. 주희가 『논어』를 해석한 『논어집주(論語集註)』의 ‘배우고 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不亦說乎)’에 대한 주석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학(學)이란 말은 본받는다는 뜻이다. 사람의 본성(本性)은 모두 선(善)하나 이것을 잃는 먼저 하고 뒤에 함이 있으니, 뒤에 깨닫는 자는 반드시 선각자(先覺者)의 하는 바를 본받아야 선(善)을 밝게 알아서 그 본초(本初, 처음)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습(習)은 새가 자주 나는 것이니, 배우기를 그치지 않음을 마치 새 새끼가 자주 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 열(說)은 기뻐하는 뜻이다. 이미 배우고 또 때때로 그것을 익힌다면 배운 것이 익숙해져서 중심(中心)에 희열(喜說)을 느껴 그 진전이 자연히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습(習)은 중습(重習, 거듭함)이니, 때로 다시 생각하고 연역(演繹)해서 가슴속에 무뉘게 하면 기뻐지는 것이다.’ 또 말씀하셨다. ‘배우는 것은 장차 그것을 행하려고 해서이니, 때로 익힌다면 배운 것이 내 몸에 있다.’

46) 주희와 왕부지의 관점에서 해석한 ‘학이시습’의 의미는 이천승, 「『논어』의 ‘학이’ 1장에 나타난 배움과 익힘의 논리와 의미-주희와 왕부지의 관점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59권(2009), 323-341쪽.

그러므로 기뻐지는 것이다.’⁴⁷⁾

주희는 ‘학’을 ‘본받다(效)’라고 하고 목적어를 ‘선각자의 하는 바’⁴⁸⁾라고 하여 선각자의 행동을 본받는 것이 ‘학’이라고 설명하였다. ‘습’은 그 글자에 새 깃털에서 따온 ‘우(羽)’가 들어 있음에 착안하여 새가 나는 연습을 하는 것에 비유하였다. ‘이미 배운 것을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익히는 것’⁴⁹⁾이 이 구절이 강조하는 핵심이다. 주희의 해석에서 주목할 말은 ‘본받다’의 ‘본’, ‘선각자’의 ‘선(先)’, ‘행동(爲)’이며 정자의 말에서 주목할 말은 ‘행동(行)’, ‘나(我)’이다. ‘본받다’의 ‘본’은 모델이다. ‘선각자’란 나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다. 먼저 알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주희의 해석을 정리하면, 나보다 먼저 안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모델로 삼아 내가 행동하는데 처음에는 행동이 익숙하지 않으니 익숙해지도록 연습하라는 것이다. 주희가 인용한 정자의 말은 주희의 해석을 더욱 명확하게 한다.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는 이(以)가 가리키는 말은 ‘배운 바’이다. 해석하면, ‘배운다는 것은 배운 바를 미래에 실천으로 옮기는 것인데 시간을 들여 연습하면 배운 바가 자신에게 붙는다. 그러면 기쁘다’이다.⁵⁰⁾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이 자리 잡기 이전⁵¹⁾인 선진 철학의 맥락에서도

47) 성백효 역, 『논어집주』(전통문화연구회, 1990), 17쪽. 이 논문의 논지와 별도로, 일반적으로 널리 읽히는 해석본을 인용함으로써 원문 해석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48) 先覺之所爲.

49) 既學而又時時習之.

50) 성백효(앞의 책, 17쪽)는 그의 『논어집주』 역주에서, 시(時)를 ‘때때로’라고 번역했는데, ‘때때로’의 의미는 ‘간혹’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을 들어서 꾸준히’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새가 나는 연습을 하는데 간혹 연습한다면 날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 정자의 말에서 ‘제아(在我)’를 ‘내 몸에 있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번역은 두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이 명확하지 않다고 추정되는 고대 중국 철학의 맥락이라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편이 낫다. 둘째,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이 자리 잡은 성리학의 맥락에서 행동은 정신의 지배하에 있다. 따라서 ‘배우고 익힘’ 역시 정신 차원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인용된 성리학자 정자의 말처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란 ‘다시 생각하고 연역(演繹)해서 가슴속에 무엇’이 되는 것이다. 성리학의 패러다임에서 ‘배우고 익힘’은 정신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편이 일관성이 있으며 몸에 쌓이는, 육체가 중심이 되는 과정으로 본다면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성백효의 번역상의 오류는 아니다. ‘내 몸에 붙어서 혹은 남아서 행동이 자연스러워지는’ 경지를 염두에 두고 번역했을 것이다.

51) 김시철은 동양철학에서도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도 역시 “흔히 서양의 철학 전통은 이원론을 바탕으로 하는 데 반하여 동양의 철학 전통은 일원론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여, 대개 동양철학에서는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이 서양 철학처럼 뚜렷하지 않다는 데 동의한다. 김시철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신이 행동을 지배한다고 전제하는 성리학의 맥락에서도 ‘학’에 관한 일관된 해석은, 첫째, ‘학’은 행동을 위해 필요하며, 둘째, ‘학’은 ‘습’, 즉 시간을 들여 연습하는 과정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학’에 관한 해석이 헨슨의 도의 구분과 연결되는 지점은 ‘행동’과 ‘시간’이다. ‘디스코스 도’와 ‘퍼포먼스 도’의 차이는 첫째, 도, 즉 방법이 행동을 위한 매뉴얼로 역할을 할 때 확인된다. 둘째, 둘의 차이는 시간으로 환원되며 이 시간이 ‘학’과 ‘습’의 개념 차이를 만든다. 얇이 순간의 체험이 아니라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은 유가철학의 여러 특징의 저변에 자리 잡은 기본 관념 중 하나다.

‘시간’이야말로 버틀러가 ‘푸코 정독’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다. 푸코를 잘못 읽었을 때 구성을 행동의 일회성이라 착각했다면 푸코를 제대로 읽었을 때는 행동의 반복성, 즉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과정으로 구성을 이해하게 된다. ‘디스코스 도’가 ‘퍼포먼스 도’로 체화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주체는 버틀러가 ‘수행성(performativity)’의 개념을 통해 제시하는 ‘행위하는 주체(agency)’와 통한다.⁵²⁾ 요컨대, 푸코 및 버틀러의 관점에서 바라본 주체, 즉 개인의 ‘자기 구성’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선진 철학을 고찰하면, 행동의 결과물로서 축적되어가는 개인을 발견하게 된다. 버틀러가 지적한 문제점, 즉 ‘행위를 시작하는 의지적인 주체가 존재한다고 전제할 때 발생하는 결정론으로의 회귀 문제’에 대한 선진 철학으로부터의 대안은 ‘행동의 결과로서 구성되어가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분석한 텍스트가 『회남자』임을 상기해보면, 선진(先秦) 철학에서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은 대개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점이라 볼 수 있다. 김시철, 「‘정신’의 발견-동서철학에서 ‘같음’과 ‘다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신문(2002년 12월호).

52)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2008).

IV. 맺음말

이 글에서 살펴본 ‘위험사회’에서 ‘자기계발’의 윤리학은 행동의 결과로서 자신을 구성하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험사회에서 자기 자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모든 행동이 자신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강요당하는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자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안과 무력감에 시달린다. 위험사회의 개인화를 바라보는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실천이 더 이상 규범의 이행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 문제라면, 개인은 일상의 다양한 실천에서 선택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서동진이 제기한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가 경험하는 모순, 즉 자유에의 의지를 불태울수록 신자유주의 통치에 포섭되는 모순을 문제의식의 출발점에서 다시 생각해봄으로써 자유에의 환멸을 느끼지 않고 자유에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일종의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개인이 자신을 구성할 자유’, 즉 ‘개인이 주체가 되어 구성하는 정체성’이다. 그런데 푸코에 따르면 ‘개인이 주체가 되어 구성하는 정체성’은 고대 그리스 전통에서부터 존재해 왔다(Foucault, 1990). 버틀러의 푸코 독해는 푸코의 윤리, 다시 말해서 ‘개인이 주체가 되어 구성하는 정체성’을 과정과 시간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해주었다. 이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철학 전통에서 강조되는 ‘학(學)의 과정을 통한 자기 구성’과 연결된다. 헨슨이 제시한 두 가지 도의 개념은 버틀러가 강조한 수행성과 반복성의 관점에서 ‘학’, 다시 말해서 배움, 수양, 수신을 통한 자기 구성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글은 현재 한국사회를 위험사회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안 사회를 모색하는 연구와 빠른 속도로 신자유주의화되어가는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개인의 노력에 주목하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개인이 주체가 되어 구성하는 정체성의 윤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왔다. 개인이 가진 ‘주체의 자발성과 자기계발의 의지’는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 특화된 현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한국사회라는 특정 맥락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를 문제화하기 위해서는 자기계발하는 주체를 다른 맥락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버틀러의 관점에

따른 푸코의 ‘윤리(ethics)’ 개념과 헨슨의 관점으로 분석한 ‘학’의 개념은 각각 동서양 철학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윤리학에 해당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학’의 과정에서는 행동과 시간, 버틀러의 용어로는 수행성과 반복이 중요하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되는 ‘학’의 과정에서 구성되는 주체는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됨으로써 느끼는 기쁨만이 유일한 보상이다. 이것이 ‘위기지학(爲己之學)’이다. 다른 보상을 바라고 행하는 ‘학’은 위인지학(爲人之學)이라고 하여 비난받았다.⁵³⁾ 스스로 주체가 되는 기쁨을 위해 평생 ‘학’을 실천하는 개인이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실천하는 개인이며 동아시아 철학에서 면면히 강조하는 이상적 인간, 즉 ‘군자(君子)’라 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인은 위기지학의 실천과 위인지학의 실천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 선택에 따라 ‘학’의 실천이 달라지며 그 실천의 결과로 구성되는 정체성도 달라진다. ‘위협사회’,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가 느끼는 불안에도 불구하고 ‘개인화’가 심화될수록, 불안이 증폭될수록 오히려 자기계발의 본래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53) 옛날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공부하였는데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남을 위하여 공부한다. 성백효 역, 앞의 책, 290쪽.

참 고 문 헌

-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들베개, 2009.
- 성백효 역주, 『논어집주』. 전통문화연구회, 1990.
- 신창호, 「동양의 교육 전통에서 “배움”의 의미 -원시유학의 논의를 중심으로-」. 『교육철학』 제33권, 2007, 141-166쪽.
- 앤소니 기든스·올리히 벡·스콧 래쉬 저, 임현진·정일준 역, 『성찰적 근대화』. 한울, 1998.
- 올리히 벡 저, 홍성태 역, 『위험사회』. 새물결, 1997.
- 올리히 벡, 엘리자베트 벡-게른샤임 저, 강수영 외 역, 『사랑은 지독한 혼란』. 새물결, 1999.
- 올리히 벡 외 저, 한상진·심영희 편저, 『위험에 처한 세계와 가족의 미래』. 새물결, 2010.
- 유홍림·홍철기, 「조르지오 아감벤의 포스트모던 정치철학」. 『정치사상연구』 제13권 제2호, 2007, 155-182쪽.
- 이경무, 「‘학’과 공자 인학」. 『동서철학연구』 제43권, 2007, 225-244쪽.
- 이천승, 「『논어』의 “학”이 1장에 나타난 배움과 익힘의 논리와 의미 -주희와 왕부지의 관점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59권, 2009, 323-341쪽.
- 임옥균, 「오규 소라이(荻生徂徠)의 『논어』 해석: 「학이」 -주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제56권, 2009, 257-302쪽.
- 임원빈, 「공자의 ‘학’에 관한 연구 -『논어』를 중심으로-」. 『공자학』 제1권, 1995, 315-341쪽.
- 주디스 버틀러 저, 김윤상 역,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인간사랑, 2003.
- 주디스 버틀러 저, 조현준 역, 『젠더트러블』. 문학동네, 2008.
- 지그문트 바우만 저, 이일수 역, 『액체근대』. 도서출판 강, 2009.
- Foucault, Michael, *The Use of Pleasure*. New York: Vintage Books, 1990.
- Hansen, Chad, *A Daoist Theory of Chinese Though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경향신문》, 「아직도 자기계발의 덫에 빠져 계십니까?」. 2011년 9월 5일자.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신문》, 「정신’의 발견 - 동서 철학에서 ‘같음’과 ‘다름」. 2002년 12월호.
- 《시사 IN》 제205호, 「진보 담론을 잠식한 ‘포르노그래피」. 2011년 8월 12일자.
- 《연합뉴스》, 「삼성맨이 되려면……’ 입사 가이드 봤더니」. 2011년 9월 13일자.

국 문 요약

이 글에서 살펴본 ‘위험사회’에서 ‘자기계발’의 윤리학은 행동의 결과로서 자신을 구성하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험사회에서 자기 자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모든 행동이 자신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강요당하는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자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안과 무력감에 시달린다. 위험사회의 개인화를 바라보는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실천이 더 이상 규범의 이행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 문제라면, 개인은 일상의 다양한 실천에서 선택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서동진이 제기한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가 경험하는 모순, 즉 자유에의 의지를 불태울수록 신자유주의 통치에 포섭되는 모순을 문제의식의 출발점에서 다시 생각해봄으로써 자유에의 환멸을 느끼지 않고 자유에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일종의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개인이 자신을 구성할 자유’, 즉 ‘개인이 주체가 되어 구성하는 정체성’이다. 버틀러의 푸코 독해는 푸코의 윤리, 다시 말해서 ‘개인이 주체가 되어 구성하는 정체성’을 과정과 시간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해주었다. 이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철학 전통에서 강조되는 ‘학(學)의 과정을 통한 자기 구성’과 연결된다. 헨슨이 제시한 두 가지 도의 개념은 버틀러가 강조한 수행성과 반복성의 관점에서 ‘학의 과정을 통한 자기 구성’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투고일 2011. 11. 1.

수정일 2011. 11. 24.

게재 확정일 2011. 11. 29.

주제어(keyword) 위험사회(risk society), 자기계발(self-improvement), 푸코(Foucault), 도(道, dao), 학(學, learning)

